

‘한뿌리’ 전남광주 다시 하나로 통합특별시 ‘역사의 문’ 열린다

절체절명 위기 돌파구는 ‘행정통합’
대통령 지원 약속 특별법 일사천리

기대·우려 공존하는 지역사회 현실
불확실성 깨는 예측가능 미래 필수

‘민형배號’ 4년 호남·대한민국 명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역사

‘한 뿌리’인 전남·광주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다.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

1986년 광주가 광주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양 지역은 철저히 이격됐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열악한 재정 여건이 맞물려 경쟁, 갈등, 반목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리는 사이 전남·광주는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았다. 1970-1980년대 산업화에서 소외되며 지역민의 가슴에는 상흔이 새겨졌다. 2000년대 들어 수도권·영남권과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 암덩어리 같은 박탈감으로 전이됐다.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절대적 상대. 먹고 살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인구 절벽’을 만들었다. 인구 소멸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말 행정 통합을 제안하며 불꽃을 뿜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즉각 화답했다. 김 지사와 손 잡고 변화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등 전폭 지원 약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일사천리.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남·광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올해 1월2일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지 50일 만의 일이다.

특별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남·광주 지역민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으로 민형배 당선자를 선택했다.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만을 앞두고 있다. 출범이 끝이 아니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 만큼, 우려 또한 지역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통합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는 현실이 자리한다. 어느 것 하나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민형배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민 당선자가 만들어낸 4년은 전남·광주를 비롯한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시간’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예측 가능한 전남·광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민 당선자의 선택과 결정, 추진력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민형배호(號)’가 보여줄 전남·광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김재정 기자



한뿌리 연리근처럼... 해남 대흥사 경내, 한 뿌리에서 두 줄기로 갈라져 우뚝 솟은 연리근 고목이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서 있다. 굵게 맞닿은 두 줄기와 사방으로 번지는 푸른 잎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해 서로를 받치며 살아온 전남과 광주의 시간을 담았다.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동행과 연대의 뿌리를 공유해 온 전남·광주가 이제 ‘한 뿌리 공동체’로 다시 서려는 새로운 도약의 순간을 담았다. 전남과 광주가 오랜 세월 깊은 뿌리로 이어진 연대 위에, 더 큰 미래를 향해 함께 자라가려는 희망이 서려 있다. /해남=조영권 기자

35 창사특집 지면 안내

마찬호 회장 취임사·축사	2면	광주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	9면	지역과 대학 상생 새 모델 ‘광주대학교’	12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3·4·5면	베트남을 담은 이색 레스토랑 ‘브우디엔’	10면	미래모빌리티시장 선도 ‘금호타이어’	13면
제16회 광주비엔날레...무엇을 담나?	8면	치료·재활·나눔...‘동행재활요양병원’	11면	디지털헬스케어 ‘원광대광주한방병원’	14면

58 광주은행 창립 58주년 **광주은행**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 **35 SINCE 1991** 주년

1 지방은행 최초(1991) 9년 연속 1 위

**통합으로 하나된 전남·광주,
더 큰 미래! 광주은행이
함께 열겠습니다!**